

보도시점 2024. 9. 23.(월) 배포 2024. 9. 23.(월)

현지화율 60%, 웨스팅하우스 11% 참여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 6.6조 원은 사실이 아닙니다.

<보도 주요내용>

9.23.(월), 한겨레는 「미국·체코 ‘이중 청구서’ 원전 수출 책임은 없다」, 「에너지 위기에 뜬 ‘원자력 해결사’…“1600조 시장” 장밋빛」, 「‘원전보다 재생으로’ 세계투자 10배의 격차 직시해야」를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>

1. “원전 수출 책임 없다. 한국 몫은 24조원 중 6.6조원에 불과”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□ 원전 수출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일자리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이며,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UAE 바라카 이후 15년만의 쾌거임

○ 현지화율 60%, 웨스팅하우스 11% 참여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 6.6조 원은 가짜 뉴스임

□ 현지화율 60%는 목표사항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시 확정될 사안임.

다만, 현지화한다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.

❶ 우선, 국내 기업이 체코 현지에 진출하는 것도 현지화율에 포함됨

우리 기업인 두산 스코다파워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터빈을 금번 순방 계기에 사용기로 확정했는데, 스코다파워 터빈이 현지화율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 사례임

② 최종 현지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음.

현지 기업이 기자재,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, 우리 기업이 수출한 중간재·기술·서비스 등이 포함되고, 현지 생산설비의 증설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도 한국의 전문가와 장비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, 현지화율에는 우리 기업의 몫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.

③ 아울러, 현지에서 기자재를 더 저렴하게 조달하는 경우는 경비를 절감해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

□ 현지화율은 원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국제 관례임

- 우리도 1971년 착공된 고리 1호기 원전 건설 당시 8%부터 시작해 90년대말 월성 2호기에서는 약 60%의 국내 현지화율을 달성한 경험이 있음
- 영국 힙클리포인트 C 원전의 경우 현지화율 목표를 60% 이상으로 제시했고, 힙클리포인트 C 사업을 수주한 佛 EDF는 64%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음. 우크라이나 신규 원전의 현지화율 목표도 60%로 제시되었음

□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 분쟁과 관련하여, 체코 원전수출에 대한 수출 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-미 양국 정부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

- 양국 정부가 함께 나서서 원전 관련 기업간 분쟁 문제 해결 지원 및 수출통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그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·미 동맹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, 수년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음
- 아울러, 세계 원전시장 확대에 따라 한·미 양국은 글로벌 원전시장 진출에 협력하자는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

- 체코 원전사업의 기자재 공급방안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임
- 팀코리아는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

2. On Time, On Budget 경쟁력을 갖춘 우리에게 원전 르네상스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

- 유럽·미국 등의 원전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해당 국가들이 탈원전을 하여 원전 공급망 회복이 어려웠거나 상당 기간 원전건설이 중단·지연됨으로써 공급망이 취약해졌기 때문임
- 세계는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,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‘탈(脫) 탈원전’ 정책이 전반적인 추세임
- 생태계 경쟁력을 갖춘 우리에게 원전 르네상스는 절호의 기회
 -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On time, On budget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도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덕분임
- 한수원은 체코 현지여건과 장기 프로젝트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,
 -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

3. 전 세계적으로 SMR 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중에 있습니다.

- SMR은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 받기 때문에, 미, 영, 프, 한 등 17개국에서 80여개 모델을 개발·경쟁중에 있음
- 태양광도 현재와 같은 효율을 달성하는 데, 약 40년간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과정을 거쳤고, 지금도 연구개발 투자중

4. 윤석열 정부는 원전·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.

-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, AI, 데이터센터,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고,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투자도 크기 때문에 안정적 무탄소 전력공급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
-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,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,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보급·발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지속 밝혀왔음

담당 부서	원전수출협력과	책임자	과 장	문준선 (044-203-5280)
		담당자	사무관	조기훈 (044-203-5281)